

2주제

“풍수지리와 신행정수도”

김 두 규
(우석대학교 교수)

풍수지리와 신행정수도¹⁾

김두규(우석대: 풍수지리학/독문학)

1. 풍수지리의 개념

첫째, 땅의 지기를 살펴 그에 걸 맞는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 사진에 보이는 산의 지기는 어떠한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떤 용도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의 택지에서도 수도로 적절한 땅의 성격을 갖는 곳을 골라야한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전제이다. 조선초기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3대에 걸친 도읍지 천도 및 개경환도 및 재천도 과정에서 한양(현 서울 사대문안)이 나온가 무악(현 연세대/이화여대 일대)이 나온가에 대한 논의 역시 땅의 성격이 주된 주제가 되었다.



〈사진 1〉 계룡산

둘째, 땅의 성격에 따른 용도가 결정된 뒤(우리의 경우 행정수도) 그 땅의 하중 능력을 살피는 것이다.

겨우 무덤 자리하나 쓸만한 땅인가 양택(집터)자리로서 적절한 규모인가? 소도시 혹은 대도시가 될 것인가? 一國의 수도로서 적절한 규모인가를 살핀다.

1) 이 논문은 필자가 2004년 3월 2일 정부종합청사 내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에서 [정감록과 풍수- 신행수도 擇地와 관련하여] 주제발표문 및 2003년 3월 27일자 [주간동아] 377호에 기고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임을 밝힘.

예컨대 규모가 가장 작은 무덤자리의 경우를, <그림 2>와 <그림 3> 가운데에서도 그 규모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사진 3>

셋째, 풍수지리는 땅에 대한 용도와 규모를 파악한 후, 그 선정된 입지에 대한 공간구조 배치를 ‘풍수 고유의 체계’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조선초 한양으로 도읍지가 정해진 후 ‘정도전은 궁궐의 위치를 남향으로 주장한 반면, 무학대사는 동향을 주장했다’는 야사²⁾ 역시 공간구조 배치에 관한 풍수적 언술이다.

도읍지의 경우(우리의 경우) 대통령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중심 건물들을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가 등 역시 풍수에서는 공간배치론에서 다룬다(예컨대, 주산 가까이는 대통령 궁, 청룡쪽에는 행정 계열, 백호 쪽에는 예술, 상공계열, 안산 쪽에는 손님에 해당되는 외국대사관 등을 배치하는 것)

넷째, 풍수지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앞의 두 가지로 끝이 난다면 서양의 건축학, 조경학 혹은 도시계획학과 다를 것이 없다. 풍수지리는 이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다. 즉 이와 같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행위를 통해 심리적 및 생리적으로 피흉추길(避凶追吉)하려는 적극적 노력까지가 바로 풍수지리의 개념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완벽한 명당(우리의 경우 풍수적으로 완벽한 행정수도 입지)은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風水無全美”). 불완전한 땅을 완벽하게 고쳐나

2) 野史에 그렇게 전하나 고증된 것이 아니며, 풍수적으로 한양의 궁궐을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東向으로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풍수에 능한 무학대사가 동향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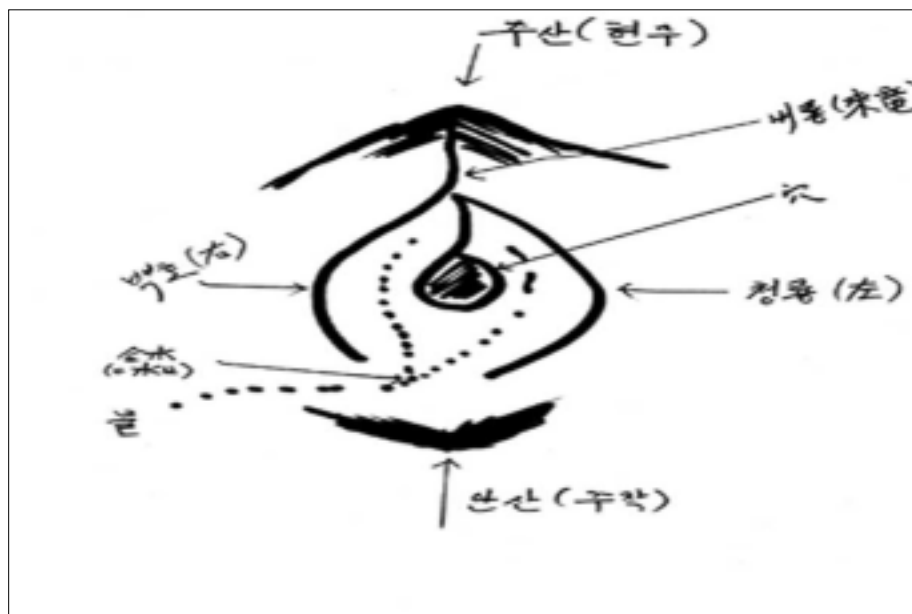
가는 행위가 ‘裨補鎮壓風水(고려풍수의 특징)’이다.

조선초기 한양으로 도읍지가 정해진 뒤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양을 완벽한 명당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토목-, 조경- 혹은 건축 공사로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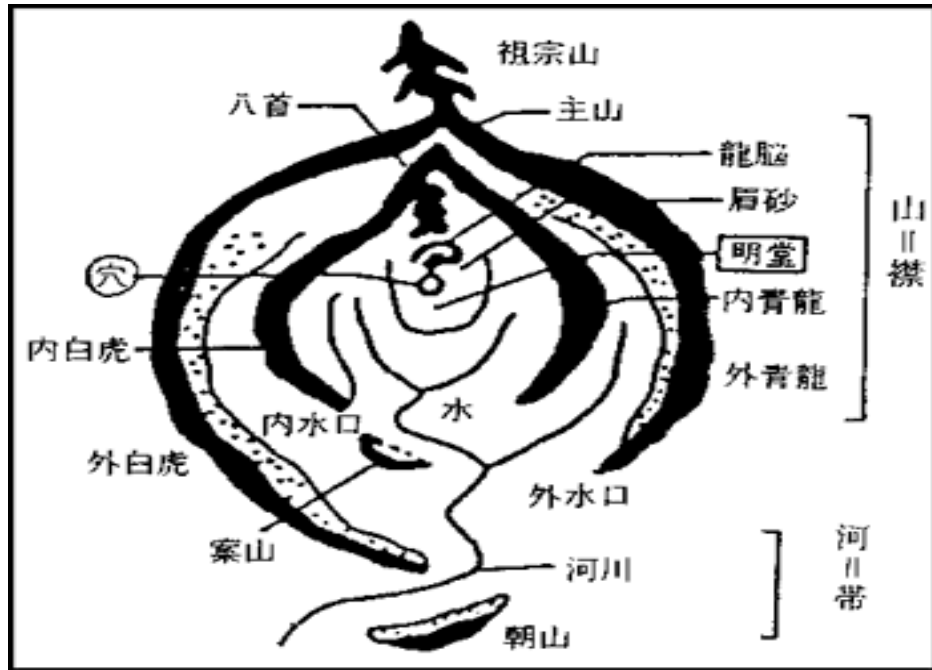
1. 경회루 연못 파기(조선초); 향원정 연못 조성(조선 후기)
2. 개천(청계천) 명당수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 관리 및 준설 작업(조선초-영조)
3. 四池(동지/서지/남지/북지) 조성
4. 동묘(관왕묘)(서기 1600년)
5. 광화문 밖 해태상 조성
6. 수구막이로서의 造山(동대문운동장 부근)

2. 명당의 본래적 모습과 그 현대적 의미

풍수에서 말하는 기본 명당도 사진2.와 3으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고 풍수 용어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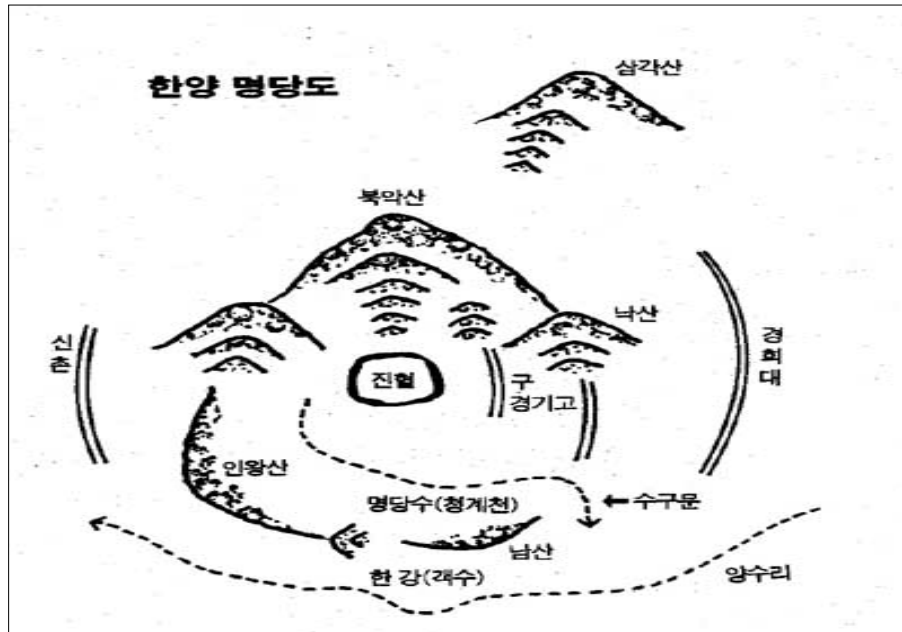
<그림 1> 위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



<그림 2> 풍수용어

- 주산(主山) : 혈 뒤쪽의 산으로 생기를 갈무리하는 곳(서울의 경우 북악산)
- 내룡(來龍) : 혈과 주산사이에 이어지는 산능선
- 백호(白虎) : 혈의 오른쪽 산(정면에서 보면 왼쪽 산: 서울의 경우 인왕산)
- 청룡(靑龍) : 혈의 왼쪽 산(정면에서 보아 오른 쪽 산: 서울의 경우 낙산)
- 혈(穴) : 집터나 무덤 자리 혹은 건물의 핵심처가 들어설 곳(한양의 경우, 경복궁 및 청와대 일대)
- 안산(案山) : 혈 앞의 산(서울의 경우 남산)
- 합수(合水) : 파구(破口)라고도 하며, 혈 앞에 두 물이 합해지는 점(수구문)
- 명당(明堂) : 혈처 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공간(서울의 경우 광화문 일대)
- 명당수(明堂水) : 명당에 흐르는 개천(서울의 경우 청계천)
- 객수(客水) : 명당 밖으로 흐르는 물(안산과 조산 사이에 흐르는 큰 물: 한양의 경우 한강)

이를 서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그림으로 본 명당도(화가 홍성담 作)

2.2. 현대적 개념으로 재구성해 본 명당

앞의 사진과 그림에서 본 명당을 현대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 다음

과 같이 3가지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1) 주거 공간

풍수지리 전문 용어로는 혈(穴)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주택의 경우 안채가 들어서는 곳, 고을의 경우 주요 관청들이 들어서는 곳, 도읍지의 경우 궁궐 혹은 대통령궁이 들어서는 곳이다.

2) 생산공간

마을 및 전통 향읍에서는 주로 논과 밭으로 활용되는 공간, 현대 도시에서는 공장 등이 들어서는 공간으로 엄밀하게 풍수용어로 이 부분을 '명당'이라 부른다.

3) 방어공간

방어 공간이란 주거공간과 생산공간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주변의 산 혹은 물을 말한다. 진산(혹은 주산)과 청룡, 백호, 안산, 및 조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주변 산들을 포괄하여 풍수지리에서는 사(砂)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땅이란 문자 그대로 유토피아이다. 완벽한 땅은 없다. 최상의 상태로 고쳐 쓰려는 적극적인 풍수행위가 비보진압 풍수이다. 일종의 '國域 조경학'이다.

3. 도읍지(행정수도) 선정에 참고할 만한 공인된 풍수이론은 있는가?

현재 풍수지리가 미신 혹은 邪術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풍수 술사마다 고증되지 않는 설들을 가지고 자기주장만을 하는 까닭이다.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선조 풍수학(지리학) 고시과목에 나타난 풍수지리에 대한 개념정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읍지(수도) 선정에 풍수설을 참고 혹은 적용하는 방법이다.

조선조 지관³⁾ 선발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조선 “地理學” 고시과목
1. 청오경(靑鳥經) 2. 금낭경 (錦囊經)* 3. 호순신(胡舜申) 4. 명산론(明山論) 5. 지리문정(地理門庭) 6. 감룡(撼龍) 7. 착맥부(捉脈賦) 8. 의룡(疑龍) 9. 동림조담(洞林照膽) 참고문헌: 경국대전(15c) 및 속대전(18c)

* : 原書名은 [藏書]로서 썸나라 때의 곽박(郭璞)의 저서로 알려지고 있으나 僞書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나라 때 현종 임금대에 이르러 錦囊經이란 별칭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3) 조선조 과거 雜科에서 “地理學” 시험에 합격하여 조정에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을 “地官”이라 불렀다.

4. 考證된 풍수설에 따른 행정신수도 택지 원칙⁴⁾

대원칙:

“천명을 주맥으로 삼고, 민심을 안대로 삼는다(以天命爲主脈.以民心爲案對).”(어효첨⁵⁾)

국민이 대통령인 참여정부에서는 천명자체가 바로 민심이다. 분단된 남북을 하나로 해줄 수 있는 민심, 빈부 격차와 지역갈등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민심(民心), 즉 왜곡된 특정 집단의 민심이 아닌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주산(主山)과 안대, 그리고 청룡과 백호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도는 바로 이와 같은 ‘천명’과 ‘민심’에 어울리는 성격을 갖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은 대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풍수 세부 원칙들이 제시된다.

4.1. 중심성의 원칙

국토의 중앙에 즉, 강원, 경상, 전라, 경기지역 등거리에 위치해서 지역화합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에 도읍지를 정하려 할 때 당시 경기관찰사 하륜이 제기한 계룡산 도읍지 불가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다.⁶⁾

4) 주간동아(동아일보)377호, 2003년 3월 27일자, 67-68면 “행정신수도 명당 선정에 대해”라는 주제로 필자가 기고한 글을 축약.

5) 조선 세종조 문신

6)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계룡신지는 남쪽에 치우쳐서 동·서·북쪽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련 서적들을 대강 열람하였습니다. 지금 듣기로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乾)방에서 오고 물은 손(巽)방에서 흘러간다 하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말한, ‘물이 장생(長生)을 깨뜨려 쇠퇴(衰敗)가 닥치는 땅’입니다. 도읍을 건설하는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고려 왕조의 여러 신릉의 길흉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봉상시의 제신릉 형지안(諸山陵形止案)의 신수가 오고 간 것으로써 상고해 보니 길흉이 모두 맞았으므로, 이에 심효생에게 명하여 새 도읍 역사를 그만두게 하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호순신의 글이 이로부터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4.2. 處女地여야 한다.

이제껏 개발되지 않는 곳으로서 지기(地氣)가 충만한 곳으로서, 이러한 곳은 과거 전쟁터, 감옥, 시장, 공장 등이 없었던 곳이어야 한다. 또한 땅 투기가 안된 곳이어야 한다.⁷⁾

4.3. 풍수에서 요구하는 명당도(四神砂와 명당 및 명당수)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앞에서 소개한 명당도 참조)

4.4. 짧은 역사를 갖다가 패망한 고도(古都)는 불가하다.

도읍지로서 토지의 하중능력이 땅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4.5. 기존의 수도인 서울(한양)과 달리 백두대간의 중심 地氣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한양의 경우 경기 북부에만 국한 한북정맥의 地氣만을 받는 곳이다. 새로운 행정수도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호남이 백두대간의

7) [立宅入式歌]에서 말하는 나쁜 땅 8가지

1. 廢址
2. 古監獄
3. 古戰場
4. 舊墳場
5. 門前道路多
6. 水從屋背冲射,
7. 三陽不照的陰地,
8. 蛟龍窟之地

1. 폐허가 된 옛터
2. 옛날 감옥자리
3. 옛날 전쟁터
4. 옛날 무덤터
5. 문 앞에 도로가 많은 곳
6. 물이 집(사옥) 뒤를 치고 들어오는 곳
8. 명당에 햇빛이 비추이지 않은 음지
8. 연못이나 늪지

地氣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즉 백두대간이 강원도와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로 이어지면서 그 하나는 호남정맥으로 호남과 경남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한남금북정맥으로 이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백두산 정기를 우리 민족이 모두 받음으로서 북한을 포함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심화합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4.6. 南向, 남동향 혹은 동향의 공간배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향은 남향 혹은 남동향).

4.7. 주변에 민족정기 혹은 민족자존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이나 유적지 혹은 인물과 관련된 상징성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굴절과 왜곡으로 점철된 해방이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데 '무서운 시어머니'와 같은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

4.8.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길이 잘 뚫려 사람과 재화 그리고 氣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 한다. 이 접근성 문제를 풍수에는 물길(水路: 객수, 한양의 경우 한강)로 해결하려 하였다. 즉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수운(水運)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水運이 전혀 의미가 없다. 즉 풍수에서 말하는 풍부한 수량이 있는 강이나 천을 굳이 주변에 갖출 필요가 없다(근처의 댐이나 저수지로도 충분). 대신 공항, 고속도로, 고속전철, 철도, 국도 등이 四通八達하여 강원, 경상, 전라, 경기, 서울과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물의 비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客水(한양의 경우, 한강)가 그렇다는 것이지, 명당수(한양의 경우, 청계천)는 매우 세밀하게 살피고 풍수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4.9 주산(한양의 경우, 북악산)은 멀리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으로 이어져 오는 독립된 봉우리로서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비슷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곳(주필산)은 풍수상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는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가능하다.

4.10. 水運의 비중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 물길(客水)은 따질 필요 없으나 물길의 흐름세(流勢)는 풍수적 조건에 맞아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九曲을 갖춘 곳이어야 하나, 현실상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三曲 이상, 물길이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나가는 곳이야 한다. 이것은 길 좌우로 산들이 겹겹이 쌓아줄을 의미하기 때문에 氣의 갈무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입에 유리한 방어조건을 제시한다.

5. 행정신수도 擇地와 관련한 풍수적 提言

5.1. 행정신수도 후보지가 발표 후의 예상되는 상황

1)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기되는데 그 가운데는 풍수설에 근거하여 볼 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나 소문이 돌 수 있다.

2) 공사가 시작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공사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인을 풍수적인 이유에서 찾으려 함 (역사적으로 그러해왔고 현재에도 그러함)

※대응책: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역시 풍수적 해명만이 최선의 방법.

* 역대 도읍지에 비해 손색이 없는 풍수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하여야 함.

* 고증된 풍수이론(조선조 풍수학 고시과목들에 제시된)을 근거로 하여 반대의견이나 이론에 대해 반박을 하여야 함.

3)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장단점을 공개한 뒤 그 가운데 比較優位에 있는 곳을 최종 결정하되 그 최종 결정지에 대한 풍수적 단점 혹은 문제점도 아울러 공개.

4) 최종 결정된 후보지의 풍수적 문제점은 비보진압풍수(조경 및 토목 공사)을 통해 풍수적으로 완벽한 땅으로 고쳐나갈 것.

5.2. 현재 거론 또는 예상되는 후보지에 대한 풍수적 특징⁸⁾

A) 후보: 충남 모처(西向)

장점: 주산과 청룡백호가 뚜렷하고 명당도 광활하여 도읍지 후보로 적절; 處女地; 명당수가 좋다.

단점: 강원도와 경북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산이 지나치게 殺氣와 剛氣를 띠고 있음

B) 후보: 충남 모처(南向)

장점: 이전에 후보지로 고려된 곳인 만큼 기본적인 명당 요건을 갖춘 곳.

단점: 인구 5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하중 능력을 갖추었는가 의문이며, 주산이 안산보다 낮고 미약하며 이미 투기가 심한 곳. 명당수가 약한 편.

C) 후보: 충남 모처(南向)

장점: 청주 공항에서 가까운 곳이며 사통팔달하여 비교적 많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 광활한 명당이 확보됨.

단점: 主山이 형성되지 못하고 지기가 분산되는 駐蹕山의 형태로 풍수에서 극히 꺼려함, 부대시설 혹은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가능. 투기가 이미 심해진 곳.

D) 후보: 충남 모처(北向)

장점: 국토의 중앙에 비교적 가깝고 청주 공항도 가까움, 명당도 광활함. 處女地

단점: 북향이며 명당수가 명당 한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흘러 물길을 옮겨야 하므로 공사가 커지게 됨; 주산과 배후의 산들이 약하다. 투기가 이미 심해진 곳.

8) 여기서 지명을 밝히지 않기로 하고, 풍수적 특징들 가운데 큰 것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E) 후보: 충북 모처(東向)

장점: 충남과 경계지점으로 주산이 크고 수려함.

명당이 광활하며, 명당수가 環抱; 청주 공항과도 비교적 가까움. 處女地.

단점: 주산과 명당수 사이에 펼쳐지는 명당이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없어 입체감이 없음: 풍수에서 말하는 前低後高의 원칙에 아쉬움이 있음.

F)후보: 충북 모처(南向)

장점: 주산이 수려하면서도 높다, 풍수에서 요구하는 主山의 요건에 부합; 주산으로부터 명당수까지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져 풍수에서 말하는 前低後高의 원칙에 부합. 靑龍이 빼어남.

단점: 전라도 및 경상도남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부근에 이미 소도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참 고 문 헌

1) 저서

김두규: 우리 풍수 이야기, 북하우스 2003.

김두규: 조선 풍수학인의 생애와 논쟁, 궁리출판사 2000.

김두규(역해): 호순신의 지리신법, 비봉출판사 2004.

김두규(역해): 조선시대 풍수학의 교과서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최창조(역주):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 국가(國域) 풍수 관련 발표자의 기고문(김두규)

1. 정감록과 풍수- 신행수도 擇地와 관련하여(2004년 3월 2일 정부종합청사 내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 주제 발표문)
2. 월간 신동아(동아일보) 1998년 1월호:
[청와대 풍수지리] 202-215면, 주제: 청와대를 옮기자!
3. 월간 신동아(동아일보) 1999년 8월호: 351-364면,
주제: 일제 식민지하의 풍수 정책
4. 월간 신동아(동아일보) 2000년 3월호, 420-431면,
주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터와 청와대 터.
5. 월간 신동아(동아일보) 2000년 10월호
주제: 역대 대통령의 풍수관 및 생가 터 묘사
6. 월간 신동아(동아일보) 2002년 2월호, 180-193면,
주제: '대선후보들의 정치 풍수'
7. 주간동아(동아일보) 377호, 2003년 3월 27일자, 67-68면
행정신수도 명당 선정에 대해: "天命을 주산으로 삼고 民心을 안대로 삼아라!"
8. 2003년 6월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관련 기고문(서울시 인터넷 신문에 4회에 걸쳐 연재)